

시론

새 학기, 교육은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김선옥
동화작가·교육학박사

3월의 공기는 새 생김새와 교문을 들어서서 발걸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실려 있다. 교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빛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하루를 부드럽게 밝힌다. 새 교과서의 냄새와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또 하나의 출발선에 선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시작의 순간마다 우리는 같은 물음을 되새기게 된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키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제도나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 건네는 삶의 방향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중심을 뒀었다. 더 많이 암기하고 더 빨리 이해하며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성취의 기준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화와 경쟁의 시대를 지나며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동시에 비교와 서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교실 안에서 배우는 내용은 늘어났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머리는 풍성해졌지만 마음은 매달려 가는 아이러니가 그 틈에서 저러났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에는 수정될 수 있고, 기술의 진보는 배움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배움이 있다.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실패를 견디는 힘,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책임감이다. 시험

지 위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역량은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된다.

프랑스의 18세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고유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순하면서도 깊게 일깨운다. 아이를 미완성의 존재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때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일이 된다. 교육은 채워 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깨우는 여정이다.

오늘의 아이들은 정답이 정해진 세계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정보를 대신 찾고 기술이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시대에, 기억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력이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다. 낯선 문제 앞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경험,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회복력이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힘이 된다.

미국의 20세기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배움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인 될 때 아이들의 현재는 유예된 시간이 되지만, 배움이 곧 삶이 될 때 교실은 살아 있는 경험의 공간이 된다. 토론하고 협력하며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익힌다.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어떤 지식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가 된다. 작은 친절과 배려를 경험한 아이는 성장하여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 된다. 결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뛰어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연대의 감각에서 비롯된다.

독일의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유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학생을 성취적인 성취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교육은 방향을 잃는다. 한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만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며, 그 경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새 학기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눈빛, 친구의 말투, 작은 배려가 만들어 내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익힌다. 따뜻한 교실은 단순히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받으려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경험을 통해 배움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교육의 성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듯 사람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배운 친절, 오늘 경험한 존중, 오늘 느낀 실패의 의미가 서서히 쌓이며 한 사람의 내면을 형성한다. 교육은 즉각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과하며 드러나는 변화의 과정이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를 다시 묻게 된다. 지식을 넘어 생각하는 힘을, 경쟁을 넘어 공감하는 마음을, 성취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길러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일 것이다. 교실마다 피어나는 배움의 작은 불빛이 아이들의 삶을 밝히고, 그 빛이 모여 우리 사회의 내일을 따뜻하게 비추길 조용히 기대해 본다.

社說

기업과 서민 살리는 플랫폼 광주회생법원에 거는 기대

광주지방법원 별관을 청사로 활용하는 광주회생법원은 6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도맡아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운영한다. 앞서 문을 연 수원과 부산의 경우 회생 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했고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한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었다. 향후 심리 단축 등 질적 도약을 바라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회생·파산 건수가 급증했으나 법원 민사부가 담당하다 보니 속도와 전문성을 두고 아쉽다는 의견이 표출돼왔다. 실제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지법은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광주회생법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전담 기관이 생겨 집중하게 된 셈이다. 지역 기업이 서둘러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수원 등으로 원정 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았다.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고 일시적 자금 검색과 경기 변동으로 어려움

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이 아니다. 기업에게 경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주고 서민에게 조속한 생계 현장 복구를 돕도록 기능해야 한다.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재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과정보다 수요해진다. 때로는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심포가 될 수 있도록 검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구성원들에 대한 김성주 초대 법원장의 당부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일보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광주회생법원의 출범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이익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운영의 묘 살리지 못한 광주 남구 사회적경제 홍보관

광주 남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방문객이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명도 찾지 않아서다. 지난해 판매 금액을 6만8천원도 집계했을 뿐 정확한 실적 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홍보관은 백운광장에 위치한 남구청사 1층 한쪽에 자리했다. 지난해 입주업체는 23곳이며, 이 중 6곳은 10월에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2024년 10월부터 입주했다. 그러나 남구 관내에 협동조합 14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4개소, 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16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자활기업 4개소 등 총 236곳이 소재한 것과 비추면 참여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적기업 마저도 관심이 저조한 현실에 놓였다.

업체도, 주민도 한결같이 외면하고 있다. 2018년 2월 개소 후 8년이 지났다. 유명무실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 실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기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부족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판이다.

남구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향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선 기부자의 공감과 지역의 변화를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아 공익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돼 기초지자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 기부제 답례품 업체 등록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하는데, 눈에 될 정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이왕이면 홍보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표준 모델까지 제시해주길 바란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도와야 한다.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시민이 사회적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남구 건설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표정연한방병원장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수족냉증은 12%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수족냉증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혈관이 수축돼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가 많다. 또한 출산이나 갱년기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출산력이 있는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호발한다. 이차적 원인으로 폐색성 혈관질환, 결합조직 질환 등이 있다.

수족냉증 환자는 손과 발의 자각적인 냉증을 호소한다. 냉증이 심한 경우 통증이나 저린 감각을 유발하며, 무릎이나 아랫배에서도 냉기를 느끼곤 한다. 수족냉증과 더불어 통증증이나 손과 발의 색이 변하는 증상이 있다

손발이 차갑고 불편한 '수족냉증'

면 수족냉증보다 악화된 레이노 증후군의 위험이 있다.

진단은 문진과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상기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수족냉증이 의심되면 수족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타 질환과 감별해야 한다. 수족냉증과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혈관폐색증,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있다. 일차의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검사로는 적외선 체열 검사가 있다. 적외선 체열검사로 체표에 비해 사지말단 부위의 체표온도가 낮아지면 병변으로 본다.

치료는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수족냉증 증상만 보일 경우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다. 한의는 침구 및 한약 치료를 활용한다.

침구치료는 전침치료를 시술한다. 전침치료는 경혈에 침을 자입한 후에 미세전기를 흘려보내 소량의 주파수를 발생시켜 통증신호를 억제하고 근육강화와 혈행순환을 도와준다. 혈관과 자율신경의 장애로 인한 냉증에는 무릎뼈에서 8-9cm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 힘줄 안쪽에 위치한 족삼리(足三里)혈과 발목 안쪽복사뼈 중심에서 위쪽으로 약 5cm 올라가 정강이뼈 안쪽 모서리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삼음교(三陰交)혈에 전침치료를 시행한다.

하복부 냉증을 동반하며 팔발 내 어혈을 보이는 경우 하복부에 뜬치료가 효과적이다. 뜬은 일반적인 핫팩과 달리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며 더 깊은 조직내로 열을 전달해준다. 그리고 진통과 회복효과를 지닌 치료법이다. 배꼽 중심에서 아래로 손가락 4마디를 내려 가서 위치한 관원(關元)혈에 뜬을 뜨면 좋다. 침구치료와 더불어 한약치료를 병행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발이 동상처럼 매우 시리고 말초순환장애를 보이면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갱년기 여성이 수족냉증과 안면홍조를 호소하면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을, 고령의 환자이며 수족냉증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하면 우차신기환(牛車腎氣丸)을 주로 활용한다.

생활관리는 손과 발을 늘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과 발은 장갑이나 양말로 보온을 하는 것이 좋다. 금연 또한 필수이다. 담배는 피부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관 건강에 해를 끼쳐 수족냉증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한 감정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은 많다. 하지만 불편함이 남보다 심하다고 느낀다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추운 날씨에 손발 건강을 유의 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광주 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발령받아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필자는 과거 소속 경찰서 회복적 대화모임의 97%를 직접 성사시키고 진행하며 사건 처리로 가는 결과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회복'이라는 길목으로 가는 과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결코 경찰관 한 명의 열정이나 '나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연연한 사실이다. 이에 광주 서부경찰서 SPO

신학기 학교 안전, 지역사회 '공동의 농사'

팀을 올 한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살피는 '처리자'가 되기 앞서 갈등을 미리 살피는 '조정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경찰은 단 한 건의 누수가 없도록 매일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둘째, 학교와 학부모,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것이다. 교실 안의 고민은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아이의 마음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지자체 및 지역 복지단체와 손잡고, 위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

학교 안전은 '공동의 농사'라 같다.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손을 보태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SPO들이 그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정은경·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중동 체류 우리 국민 인접국 대피 현황

3월 기준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21,000여명 체류, 정부 주도 대피 진행



연말뉴스 자료: 외교부 등 관계부처 종합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등 약 140명이 3일(현지시간) 인접국인 튀르키예나 시리아로 대피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체류 한국인 2명 등 일행은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타고 전날 오전 5시 테헤란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이동했다. 당초 이란 국적 가족의 입국이 제지된 탓에 현지에 남으려던 한국인 일행이 함께 출국할 수 있게 되면서 대피 한국인은 2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산 소속 이기제 선수도 함께 이란을 빠져나왔다. 이란에는 교민 60여명이 체류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피로 40여명이 남았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66명도 이날 이집트로 대피했다. /연말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로로 월 15,000원 1부 800원